# 백두산

## 공화국 창건 54돌

#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주체조국의 영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오늘 우리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4돌과 공화국창건 54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태양을 모시어 영광 넘치는 주체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다함없는 흠모와 일치한 소망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온 세상에 그 이름 태어난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으로써 민중이 주인된 참다운 국가의 출현을 열망해온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이 빛나게 실현된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54년간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영도따라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헤치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인류역사에 시대에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 왔습니다.

온 겨레와 인류가 환희에 넘쳐 경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경축하는 이 시각 우리 남녘 민중은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무한한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찍이 준엄한 항일전의 불길속에서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 정권건설의 고귀한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공화국을 창건하신 어버이주석님께서는 미제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격파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셨으며 주체의 붉은기 드높이 조국북반부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꽃피우시어 인류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자주적 이상이 구현된 참다운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세계적 모범을 창조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전세계에 찬연히 빛을 뿌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한평생 나라와 민중을 위하여 바쳐오신 끝없는 노고와 심혈의 숭고한 결정체이며 **김일성**민족의 위상을 영원히 담보하는 만능의 유산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 건국위업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성상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주체강국건설의 진두에 서 계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의 창립자, 건설자이시며 사회주의조국의 시조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가장 숭엄하게 높이 세우시고 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셨으며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시어 공화국의 역사가 수령님의 역사로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주체적인 국가건설노선과 정책을 부강조국건설의 귀중한 생명선으로 삼으시고 정력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시어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 토대와 불패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었으며 공화국정권은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 무기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천재적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정치사에 처음보는 만능의 선군정치를 창시하시고 그를 공화국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구현하시어 제국주의반동들의 반북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분쇄하시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주체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밝히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영도하에 공화국정권은 근로민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천재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민중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주체조선은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위용 떨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8월 또다시 러시아연방의 극동지역을 방문하신 것은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더욱 드높이고 조러친선관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조국의 통일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펼쳐준 21세기의 또하나의 특대사변이었습니다.

찬란한 태양의 미소로 지구촌을 밝히시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7000여리의 대장정을 위대한 헌신의 자욱으로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태양민족의 한없는 자긍심과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으로 끝없이 끓어번졌던 우리 남녘 민중의 가슴가슴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과의 상봉과 회담을 위하여 일본 총리가 9월중순에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는 특대소식에 접하여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만고절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어 공화국은 그 존엄과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행성의 중심에 우뚝솟아 세계정치흐름을 주도하는 강국으로 인류자주위업의 불씨로 세인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참말로 주체조국의 참모습은 곧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이며 **김일성**조선으로 누리에 빛나는 공화국은 온 겨레가 안겨살 어머니조국, **김정일**장군님의 품입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어 7천만 겨레에게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으며 오늘 분열주의자들의 악랄한 반북도발책동을 짓부수고 남북간의 각방면에 걸쳐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시고 조국통일의 국제적 환경도 더욱 유리하게 전진시켜 주시었습니다.

민족운명의 구세주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새 세기 가까운 앞날에 통일된 강성대국에서 장군님식솔로 복락할 그날이 앞당겨지고 있음은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심장속에 새겨진 억척의 신념이고 확신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민족자주와 존엄의 표대로, 조국통일실현의 근본열쇠로 거머쥐고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감으로써 하나된 조국을 기필코 안아오고야 말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남녘 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 민중의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2002)년 9월 9일**
**서울**

집단체조≪아리랑≫의 3경 ≪내 조국≫

# 우리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4돌을 맞이하며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남녘의 청년전사들은 한없는 경모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인류정치사에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의 창건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이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발전사는 곧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역사이며 위대한 주체사상이 구현된 자주적인 정권건설의 영광찬 투쟁역사였습니다.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시기 주체적인 정권건설의 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광복이후에는 전체 민족의 총의를 모아 참다운 유일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습니다.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주석님께서는 청소한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제침략세력의 무력침공을 쳐물리치시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시였으며 모든 것이 파괴된 빈터위에 천리마를 날리시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하시였습니다.

우리 민중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민중속으로 들어가시였으며 이 땅위에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복락의 민주주의지상낙원을 세워주시였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밝혀주시고 이를 현명히 구현하심으로써 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시는 한편 국제적인 반미반제투쟁을 영도하시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실로 태양조선으로 찬란히 빛나는 우리 나라의 자주와 존엄의 역사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혁명생애가 금빛으로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혁명역사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모심으로써 어버이주석님의 건국위업이 빛나게 계승되고 필승불패의 궤도를 따라 진군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습니다.

도덕의리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체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나라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하심으로써 **김일성**조선의 역사가 영원히 빛나게 하시였습니다.

인류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주석님의 주체적인 건국사상을 풍부심화시키시여 주체조선의 전도를 밝히시였으며 우리 나라를 주체위업완수의 정치적 무기로 강화하시는 한편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창출하시였습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특히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나라를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 자립경제의 강국으로 발전시키시여 반제자주투쟁의 영도국으로, 사회주의옹호의 모범국으로 우뚝 세워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아래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와의 90년대 총포성없는 대결전에서 전설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민족자주의 좌표인 조미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함으로써 가까운 몇해안에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구성이시며 국제적 수령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연속적으로 6.15공동선언과 조러모스크바선언을 발표하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이정표와 세계자주화의 대강을 세우시였으며 통일혁명승리와 인류자주위업에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장군님이야말로 위대한 주석님과 사상, 영도, 풍모에서 그대로이신 진정한 영도자이시며 국제적인 수령이시라고 한마음한목소리로 끝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온 강토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숭배열기가 차넘치며 조국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통일애국의 구호가 힘차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 남녘의 청년투사들과 각계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는 불패의 혁명기지를 바라보며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고 부흥하는 우리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혁명적 신심과 낙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통일혁명의 사상과 전략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며 통일혁명위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분투할 것입니다.

어버이주석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고 위대한 당과 위대한 조국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우리 청년전사들과 애국민중은 우리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통일혁명투쟁에 앞장서는**
**남측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편집국 백두산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편집인**
**주체 91(2002)년 9월 9일 서울**

# 민중중심의 참세상 마중가자

오늘 우리 겨레는 민족의 긍지와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54돌을 뜻깊게 맞고 있다.

이날을 맞는 이 땅의 각계민중은 걸출한 사상이론활동과 정력적인 영도로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중심의 나라를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민중의 참세상을 안아올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1948년 9월9일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지난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해 온 우리 겨레를 자주독립국가의 존엄높은 민족으로 내세워준 역사적 사변이었다.

동방일각에 처음으로 세워진 공화국정권은 가장 민주주의적인 정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구현하고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참다운 민중의 정권이다.

온 겨레의 이익과 의사에 따라 세워진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주석님의 주체적인 건국노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주권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항일의 빛나는 전통에 토대하여 광복후 독창적인 건국노선을 제시하시고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근로민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중중심의 나라를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공화국을 창건하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시었다.

우리 7천만 겨레는 민족의 양양한 미래를 담보해 주는 민중중심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일조국의 휘황한 앞길을 열여주신 위대한 주석님의 만고의 건국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아래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민중의 참다운 나라로 시대의 각광을 받고 있다.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북압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며 이북민중이 참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의 알찬 결실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민중이 주인된 공화국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하여 날로 융성번영하는 이북의 현실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민중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민중중심의 참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보려는 것은 우리 이남민중의 세기적 숙망이다.

50여년세월 식민지 이 땅에서 이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워오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도하시는 민중중심의 참세상에서 만복을 구가할 그날은 기필코 오리라는 것을 폐부로 절감하고 있다.

애국애족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7천만 겨레에게 민중중심의 참세상을 안겨 주시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전환적 국면을 휘황히 열어주시었다.

우리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성취되며 민중의 참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불변의 의지와 신념으로 간직하고 반미자주통일운동에 과감히 분기하고 있다.

오늘날 애국심을 가지고 통일성업에 이바지하는 것은 민중중심의 참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민중의 본분이며 임무로 나서고 있다.

통일위업성취에 민중의 참세상이 있고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있다.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반미자주화와 민족대단결, 애국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역사와 시대의 부름이며 민족과 민중의 요청이다.

# 자주국가의 표본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이 없으면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이 주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주적 정권을 가져야 하며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는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정치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기자신의 결심에 의하여 오직 자기 민족의 이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걸맞게 모든 정책과 노선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의 압력이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정권은 민족의 운명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진정한 민중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이러한 정권을 가진 나라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이북은 세계 민중이 경탄해 마지않는 자주독립국가이다.

공화국정권은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반세기여에 걸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승리와 번영의 자랑찬 역사를 수놓아왔다.

오늘 이북이 지구촌에서 주체사회주의조국으로 시대의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만고절세의 위인들을 영수로 모셨기 때문이다.

광복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찾아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첫날부터 자주를 공화국의 생명으로 간주하시고 남의 식이 아니라 민중의 의사와 요구, 이익에 걸맞게 모든 노선과 정책을 입안시행하시었다. 대국들이 ≪세브≫와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하라고 할때에도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입장에 확고히 서시어 예속의 멍에가 아니라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가시었다.

그리하여 이북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존엄높은 주체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시었다.

지난 72년 ≪워싱턴 포스트≫ 기자시절 미국기자로서는 처음으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뵈운 셀릭 해리슨이 ≪이북사회야 말로 모든 면에서 민족자주노선으로 똘똘 뭉친 사회≫이라고 자기의 심정을 고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확한 평가이다.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이북은 오늘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자주의 강국으로 그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있다. 오늘날 동서방의 어느 대소국가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과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한 나라, 미국으로 하여금 굽어들게 하고 제발로 찾아오게 한 나라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밖에 없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조고압적인 횡포나 물리적 힘에 의한 강박으로서도 이북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북이야말로 우리 행성에서 작으면서도 강한 나라, 자주성과 주체성이 단연 세계의 첫 손가락에 꼽히는 명실상부한 자주강국의 표본이다.

최근 미국의 대북전문가들이 ≪50여년간 줄곧 미국에 도전하여 나오는 이북의 정치철학, 반미자주의식은 미국에 있어서 하나의 큰 악몽≫이라고 비명을 올린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아무리 포악하고 강대한 적도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신묘한 지략을 지니신 천출명장이시다.

국가의 위상은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도자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위인을 영도자로 모시는가에 따라 작은 나라도 강한 나라로, 억눌렸던 민족도 세계제일민족으로 되기 때문이다.

세계정치와 시대흐름을 주도해 나가시는 세계정치의 원로,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바로 여기에 이북의 정치, 자주정치의 필승의 비결이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선군정치로 오늘날 이북이 자주국가의 표본으로 세인들의 경탄과 부러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식민지동토대에서 사는 우리 이남민중 모두에게 내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삶의 활력소로 되고 있다.

외세에 의한 국토분단의 비극으로 말미암아 국호는 있어도 자주권이 없고 군대는 있어도 통수권이 없으며 경제는 있어도 제것이 없는 이 땅은 철두철미 미국의 식민지이다.

자주의 사각지대, 인권의 불모지 이 땅에서 우리 민중은 50여년간 주한미군의 살육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

주한미군이 남녀노소할 것 없이 쏘아죽이고 깔아죽이고 찔러죽이고 때려죽이며 강간, 폭행, 강도, 방화 범죄를 저질러도 항변 한마디 못하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다.

오늘 우리 민중의 희망의 등대인 자주국가의 표본, 민중중심의 참세상인 이북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이다.

세계자주국가의 표본국을 영도해 나가시는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중은 머지 않아 통일된 강산에서 강성대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를 열과 성을 다해 받들때 우리 민중은 하나된 자주민족으로 그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치게 될 것이다.

장수일 - 구국전선
주체91, 9월 1일

## 공화국이 창건되던 그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정강을 발표하시는 주석님

우리 민중은 희망의 등대이며 참다운 민중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절을 맞을 때면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주체건국업적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돌이켜 보면 광복후 이 땅을 강점한 미국은 1948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단독정부를 조작하려고 서둘렀다.

어버이주석님께서는 급변하는 정세를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1948년 6월29일 남북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협의회를 소집하시었다.

협의회에서는 자유선거를 실시한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적인 전조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창설하고 남북대표들로 통일적 중앙정부를 세울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남북정당, 사회단체들의 대표자협의회가 있은 후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를 소집하시고 이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실시하며 그에 기초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진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총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었다.

이에 온 민족은 끝없는 기쁨과 환희로 들끓었다.

민중에게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된 이북에서는 유권자들이 공개모임을 열고 진정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노동자, 농민, 사무원, 기업가, 상인, 수공업자,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 212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후보자로 추천하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남의 실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2중적인 선거방법으로 대의원입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시었다.

이리하여 이 땅 전역에서 민중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서명선거가 일제히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은 생명을 걸고 자기들의 대표를 선거하였으며 그들은 그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입후보자를 추천하였다. 이남민중들은 경찰의 감시가 그림자처럼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를 위해 싸우다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이해 8월25일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길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남북총선거는 역사적인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한반도적인 통일적 최고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세워졌다.

9월2일 어버이주석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소집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온 겨레의 일치한 지지와 찬동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전조선 최고입법기관의 상설조직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선거하였다.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 5일 회의에서는 온 민족의 의사와 염원에 따라 어버이주석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으로, 국가수반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그리고 9월9일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세기적 사변이었으며 민족의 대경사였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인민위원회들이 강제로 해산되고 수많은 애국자들이 검거투옥되었으며 오늘까지 50여년간 민중이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짓밟히우며 온갖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오고 있다.

오늘 우리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반미자주통일운동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다.

우리 민중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통일된 조국에서 하나의 국호를 가진 민족으로 부강번영할 것이다.

# 선군정치는 민중사랑의 정치

정치가 올바른 것으로 되려면 민중을 위한 사랑의 정치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랜 세월 인류는 이러한 민중사랑정치를 이상으로 그려왔다.

세계정치사는 수많은 정치유형들을 산출했지만 인류가 그처럼 바래온 참다운 민중사랑의 정치는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북에서만은 인류가 이상으로 그려오던 민중사랑의 정치가 현실로 구현되어 오고 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사기로에 놓였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시고 독특한 인덕정치를 펼치시어 인류정치사에 처음으로 되는 민중사랑정치의 대화원을 마련해 주시었다.

오늘 이북민중은 위대한 주석님과 꼭 같으신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특유의 선군정치에 의해 민중사랑의 최정상에서 만복을 구가하며 인간만세를 높이 외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그 과학성과 정당성, 불패의 활력으로 하여 자주시대의 가장 완성된 정치방식, 정치표본으로 인류의 찬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하여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군대를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방식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50돌 경축 열병식장에서

지난 시기에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이 진행되며 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이룩해야 하는만큼 사회주의국가정치에서 국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강조되었고 국방력강화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군정치방식은 단순히 국방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회주의국가정권의 대외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선군정치는 군대를 강화하고 군대의 역할을 높여 민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민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민중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정치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군정치는 민중사랑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민중의 자주성을 존중히 하고 실현시켜 민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만끽하게 하는 최대의 사랑이 선군정치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자주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는 당연히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어야 하며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정치는 민중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이란 목적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사랑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혁명을 하는 목적이 인민들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민중사랑의 정치라는 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지켜주고 높이 발양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는 가장 준엄했던 90년대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영도가 없었더라면 전세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북은 미국을 필두로 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공격으로 붕괴되어 일어서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인민군이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되어 그 어떤 강적도 단매에 때려부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 미제는 감히 범접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다.

세계제패야망을 꿈꾸는 부시는 사회주의 성새이며 보루인 이북을 압살해 보려고 ≪악의 축≫이니, ≪핵선제타격≫이니, ≪전쟁의 해≫이니 하며 갖은 침략책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북만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예속을 이기는 자주의 힘이고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힘이며 민중의 행복을 지켜주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오늘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정권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 민중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 권리와 권한을 확고히 보장해주며 그를 높이 발양시키고 있다.

선군정치가 민중사랑의 정치라는 것은 민중의 행복한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것을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바치기 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9년 1월1일 이날도 일꾼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새해의 업무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이라고 말씀하시었다 한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시기 매일과 같이 군부대와 공장, 기업소, 농촌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엄혹한 정세하에서도 인민군군인들을 민중생활향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 부르시어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을 거창하게 일떠세우시었다.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에 애로와 불편이 있을세라 온갖 노고와 심려를 기울이시며 기초식품생산과 생활필수품 등 민중생활에 필요한 그 모든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다.

이북민중의 생활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속에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서사시가 날에 날마다 창조되고 있다.

태어나는 새 생명을 위해 인민군비행대가 출동하고 민중의 생명재산을 위해 군대가 피와 살을 바치는 선군시대의 미풍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었다.

제일 좋은 것은 근로하는 민중에게 돌려주시고 그 어려운 때에도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려 민중에게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야말로 민중사랑의 정치의 최고정화라 아니할 수 없다.

역사에는 군대를 민중탄압의 도구로, 정권유지수단, 국토방위로 삼은 정치는 있었어도 군대를 기둥으로 나라를 지키고 경제를 건설하고 민중의 복리증진을 책임지는 민중행복의 수호자, 창조자로 내세운 정치는 없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특유의 선군정치가 있어 이북민중은 사랑의 대화원 속에 인간의 참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우리 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 아래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강철규 - 구국전선 주체91, 9월 1일**

공화국 창건 50돌기념 평양거리

공화국 창건 50돌기념 군중시위